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 주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 05~0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9 SEPTEMBER 2014

토요상설공연 Weekend Performances in September

2014년 9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상설공연 Sunday Performances in Museum Courtyard

2014년 9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우리민속 한미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10월 공연 일정 미리보기 토요상설공연

일자	공연제목	공연자	장르
4일	정명희의 춤	정명희	무용
11일	'동화'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국악 콘서트 '꿈꾸는 동화'	동화	기악
18일	김희진의 新전통, 춤판을 벌이다	김희진	무용
25일	가을이 오는 길목에 춤으로 수놓다	조남규/송정은	무용

일요일린민속무대

5일	여연화재수	평화예술단 '연'	연희
12일	신명나는 탈춤한마당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기타
19일	신명나는 연희한판! '도리판Good'	여성타악연희그룹	연희
26일	신명나는 화성 두레굿	경기전통화성두레	연희

9월 정자나무그늘 수요일민속음악회

Wednesday Folk Music Concerts for September, Museum Courtyard
2014년 9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09. 03. 다 함께 놀자! '유희노리' -연희컴퍼니 유희

09. 17. 각양각색 -민속악그룹 필

09. 24. 퓨전국악, 난타야 놀자! -김기봉

※공연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공연료는 무료 입니다. Free Admission

9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September,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4년 9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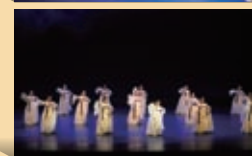
제860회
수온당(受蘊堂) 최순희의 춤결
Breath of Dance by Suondang Choi Sunhui
09. 06.



제861회
심무(心舞)Ⅲ
Dance from the Heart
09. 13.



제862회
녹원 송영숙의 가야금 '허튼가락'
'Heoteun Garak' Gayageum performance by Nokwon Song Yeongsuk
09. 20.



제863회
수당(秀堂) 정명숙의 춤
Dance by Sudang Jeong Myeongsuk
09. 27.

9월 일요일린민속무대

Sunday Performances in September, Every Sunday 2:00pm, Museum Courtyard
2014년 4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354회
FROMKOREA의 젊은 난장
Youthful Nanjang by FROMKOREA
09. 07.



제355회
신명나는 택견 한마당
Dynamic Taekkyeon Performance
09. 14.



제356회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
Honam Jwado Imsil Pilbong Nongak
09. 21.



제357회
오천년전의 가와지벌씨와 고양송포호미걸이
5000-year-old rice kernel in Gawaji and Goyang Songpo Homigeori
09. 28.

우리민속 09 SEPTEMBER 2014
한미당



수온당(受蘊堂) 최순희의 춤걸

Breath of Dance by Suondang Choi Sunhui

2014. 9. 6.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궁중무용(정재)과 민속무용을 통해 무형문화의 참모습과 우수성을 함께 알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였다.

궁중무용 가운데 유일한 독무인 무산향과 춘앵전의 화려한 춤사위는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이다. 민속춤에서는 태평무와 살풀이를 통해서 춤추는 이의 자유로운 영혼과 생기 넘치는 몸짓과 발걸음을 볼 수 있다. 태평무와 살풀이는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채 무대 동선을 자유로이 점유하며 즉흥적인 춤사위로 연희자의 내공과 공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손짓, 발걸음, 시선 등에서 정중동의 극치를 맞볼 수 있다. 또한 교방장고춤, 태평산조, 소고춤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장단의 흥과 다양한 변주가 우리 춤에 얼마나 잘 수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뜻 깊은 공연이 될 것이다.

Korean traditional dance works, including both court dance(jeongjae) and folk dance genres will be performed to convey the authenticity and excellence of intangible culture. In two solo court dances, Musanhyang and Chunaengjeon, the audience can not only appreciate elegant beauty of the dancer's movements but also sympathize deeply with stories and legends associated with each dance piece.

What follows are Taepyeongmu and Salpurichum that dancers display unconstrained emotions and vibrant movements with springy steps. In these two folk dance pieces, the highest perfection of Jeong-Jung-Dong(literally, motion in a state of stillness)will be articulated by the medium of hand gestures, foot movements and facial expressions that reveal individual performer's talents and capabilities. At the end of the program, Gyobang-janggochum, Taepyeongsanjo and Sogochum will be given in sequence. The audience members, while enjoying the show, may grasp that the merri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its rhythmic variations are well suited to traditional dances.

공연순서 PROGRAM

- 01 무산향 Musanhyang
- 02 춘앵전 Chunaengjeon
- 03 태평무 Taepyeongmu
- 04 교방장고춤 Gyobang Janggochum
- 05 태평산조 Taepyeong Sanjo
- 06 살풀이 Salpuri
- 07 소고춤 Sogochum



대표 최순희(드림무용단 감독)

연출 강영미

출연 최순희, 박신영, 홍채섭, 강외숙,
배순열, 김신애, 김성민, 변영화

심무(心舞)Ⅲ

Dance from the Heart

2014. 9. 13.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원유선무용단이 전통춤을 재구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가락의 흥겨움과 우리 춤의 아름다움 그리고 복식의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강선영류 태평무는 궁중복식을 입고 우리 춤의 정·중·동의 멋을 선보이며, 부채입춤은 단아함을 사랑가는 애절한 춤사위를 선보인다. 살풀이춤은 우리민족의 한을 춤으로 풀어내고 진도북춤과 장고춤 소고춤은 사물악기 반주와 더불어 흥겨움을 선사할 것이다.

Won Yuseon Dance Company reconstructs traditional Korean dances under the title of Simmu III. The audience can appreciate merriment and jollity of Korean rhythms, the beauty of Korean dances as well as simple yet gorgeous Korean traditional dress, Hanbok throughout the performance.

In Taepyeongmu by Kang Seonyeong line, dancers wearing court costume reveal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dance, Jeong-Jung-Dong(subtle movements in silence). What follows are elegant Buchae Ipchum and Sarangga with slow and mournful movements. During the Salpurichum performance, dancers express the human emotion of sorrow sublimed into jubilation. With Korean percussion accompaniment, Jindo Bukchum(Drum dance of Jindo Province), Janggochum (Hourglass-drum dance)and Sogochum(Small drum dance) will generate plenty of mirth on the stage. The audience around the world, though unfamiliar with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may fully appreciate this program by its splendid presentations and heartfelt tunes.

공연순서 PROGRAM

- 01 태평무 Taepyeongmu
- 02 부채입춤 Buchae Ipchum
- 03 사랑가 Sarangga
- 04 살풀이춤 Salpurichum
- 05 진도북춤 Jindo Bukchum
- 06 장고춤 Janggochum
- 07 소고춤 Sogochum



대표 원유선(원유선무용단 대표)

사회 구자은

출연 원유선, 윤영숙, 박연주, 성예진, 김하림,
남상아, 손수미, 안영환, 김세정, 이호연



녹원 송영숙의 가야금 '허튼가락'

'Heoteun Garak' Gayageum performance by Nokwon Song Yeongsuk

2014. 9. 20.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47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의 가락과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녹원 송영숙이 풀어내는 산조를 선보인다.

본 무대에서는 가야금 독주, 중주, 합주 등 각 곡마다 특색을 살린 가야금연주와 첼가야금, 양금, 아쟁 등 현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울림으로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첫 무대는 풍류가야금의 도드리(換入)합주로 굵은 명주실 음색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힘 있는 가야금만의 합주를 느낄 수 있고, 풍류 사랑방 음악에서 주로 연주되던 뒷풍류 가락을 첼가야금과 양금의 2중주 구성으로 밝고 화사한 음색으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허튼가락 1,2,3은 150여 년 전 김창조에 의해 창시되어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산조를 다양한 구성을 통해 산조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뜻 깊은 공연이 될 것이다.

Nokwon Song Youngsuk, who has inherited gayageum(a traditional Korean zither-like string instrument, with 12 strings) sanjo(instrumental solo) of Kim Byeongho school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47 by southern Jeolla provincial government, presents sanjo pieces.

This program comprises two parts: diverse gayageum performances including solo, duet, ensemble and string performances using various traditional Korean stringed instruments such as, Cheol gayageum(gayageum with iron strings), Yanggeum(a dulcimer), Ajaeng(A bowed seven to nine-string horizontal zither), etc.

The stage begins with Dodeuri, Korean court ensemble in which the audience may appreciate soft yet powerful sounds produced by thick twisted silk strings of gayageum. What follows is the music enjoyed by the literati, Dwit Pungryu written for Cheol Gayageum and Yanggeum. In Heoteun Garak 1,2 and 3, the performers play a collection of pieces for gayageum sanjo which was created by Kim Changjo almost 150 years ago so that the audience may broaden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sanjo.



공연순서 PROGRAM

- 01 도드리(換入), '처음, 다시 돌아가다' - 가얏고 합주 Dodeuri 'The Beginning, Go Back' - Gayageum ensemble
- 02 허튼가락 1, '떨림과 울림' - 가얏고와 아쟁 Heoteun Garak1 'Vibration and Echo' - Duet for Gayagem and Ajaeng
- 03 허튼가락 2, '잔잔한 소리, 두울' - 가얏고 2중주 Heoteun Garak2 'Tranquil Sound, Duul' - Gayageum Duet
- 04 뒷풍류, '명랑(明朗)' - 첼가얏고와 양금 Dwit Pungryu 'Jocundity' - Duet for Cheol Gayagem and Yanggeum
- 05 허튼가락 3, '금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 가얏고 독주 Heoteun Garak3 'Gayageum Sanjo of Geumam Kim Byeongho School' - Gayageum solo



대표 송영숙(녹원풍류회 회장)

출연 가야금 - 송영숙, 유가은, 이나경, 김유나, 류은경, 엄소연, 정의호,
아쟁 - 서준웅, 장구 - 권은경

수당(秀堂) 정명숙의 춤

Dance by Sudang Jeong Myeongsuk

2014. 9. 27.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전통 춤의 원형을 추구하며 우리 춤을 올바르게 전수해 오고 있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후보 정명숙(丁明淑)의 공연 활동을 고대하는 관객들에게 다른 무용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춤의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정명숙의 새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명숙의 춤 공연은 전통 춤이 갖는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어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춤을 보는 시각을 넓히며 춤의 내재한 깊은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공연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현대 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허공에 뿌린 수건자락 아래 춤의 향을 맡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Jeong Myeongsuk, a candidate for a holder of Salpurichum which is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97, will present traditional Korean dances. In this program, Jeong Myeongsuk, who passes down traditional Korean dance in pursuit of its original form, unfolds her own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 so that the audience feel new and unique energy she made of.

This performance aimed to foster people's cultural pride by revealing the excellence of Korean culture embedded in traditional dances; broaden and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dance works; also experience excitement and grace that are implicit in classical dances. Following the graceful movements of the dancer who holds a long white strip cloth, the audience members will be fully absorbed in the performance away from stress caused by modern lifestyle and relationship.

공연순서 PROGRAM

- 01 교방무 Gyobangmu
- 02 첨수무(궁중검무) Cheomsumu(Gungjung Geommu)
- 03 입춤 Ipchum
- 04 한량무 Hallyangmu
- 05 산조춤 Sanjochum
- 06 장고춤 Janggochum
- 07 살풀이춤 Salpurichum



대표 정명숙(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후보)

출연 김정희, 정경자, 유주희, 안정옥, 박지혜, 한설영,
최해리가, 김태연, 박애리, 김현아, 안예슬, 한나연,
이유진, 박향숙, 심숙자, 임정태, 우한웅

FROMKOREA의 젊은 난장

Youthful Nanjang by FROMKOREA

2014. 9. 7.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우리 고유의 풍물, 재담과 동작으로 전통연희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관객과 하나가 되어 소통하는 공연을 준비하였다.

첫 무대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대표로 하는 풍물가락을 짜임새 있게 엮어 사물(쟁과리, 장구, 북, 징)로 표현한 삼도의 풍물가락이 신명으로 연주되는 앓은반 사물놀이를 선보인다. 이어서 판소리의 한 대목을 듣고 팔도의 아리랑을 메들리로 들어보며 추임세도 배워보는 팔도유람 아리랑, 일명 남사당놀이의 민속 예능의 한 가지로 버나를 돌리고 던지며 모기를 부리며 재담을 주고받는 버나놀이, 한국 전통 가락을 기반으로 외국 리듬문화를 반영하여 창작된 타악 퍼포먼스 '청춘서심', 마지막으로 머리에 상모를 쓰고 사물악기를 연주하며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져 흥겹게 놀 수 있는 선반 판굿과 상모놀음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FROMKOREA presents a unique traditional performance in which Pungmul(traditional Korean percussion music), Jaedam(witty dialogue) and motions are combined. Throughout the program, the audience will interact with the performers by experiencing simple acrobatics; and communicating by jokes.

Anzeumban Samulnori lifts the curtain. In this stage, performers play representative pungmul rhythms of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using four major Korean percussion instruments: KKwaenggwari(small flat gong), Janggu(hourglass drum), Buk(barrel drum) and Jing(large gong). What follows is Paldo Yuram Arirang in which the audience listen a part of Pansori and Arirang folksongs of several regions, then learn Chuimsae(rhythmic exclamation). Beonanori of which performers spin plate-looking beona on a pole and 'Cheongchunseosim' a creative percussion performance based on Korean traditional rhythms mixed with western beat will be staged in sequence. Lastly, the performers wearing spinning streamer hats present Seonban Pangut and Sanmonoreum with exciting percussion quartet accompaniment.

공연순서 PROGRAM

- 01 앓은반 사물놀이 Anzeumban Samulnori
- 02 팔도유람아리랑 Paldo Yuram Arirang
- 03 버나놀이 Beonanori
- 04 타악 퍼포먼스 '청춘서심' Percussion Performance 'Cheongchunseosim'
- 05 선반 판굿과 상모놀음 Seonban Pangut & Sangmonoreum



대표 이상호 (FROMKOREA예술단 예술감독)
출연 인승현, 조삼열, 정준용, 김선인, 이상원,
김태준, 이강산, 이강도, 홍재현

신명나는 택견 한마당

Dynamic Taekkyeon Performance

2014. 9. 14.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이자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도 등재된 택견 공연을 선보인다.

택견은 이 땅의 선조들이 오랜 세월동안 갈고 닦아 온 맨손의 겨루기 기예로써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차거나 걸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전통무예이다.

본 무대에서는 조선시대 서울 중심으로 성행했던 사직골 한량들의 '우대택견패'와 구리개 군인들의 '아래대택견패'의 결련택견(마을과 마을단위의 택견 대항전) 한마당을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유쾌하고 신명나게 공연형식으로 재현한다. 마을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택견꾼들의 용맹한 기상과 화려한 기술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를 이끌어 가는 풍물패의 신명나는 장단, 그리고 경기가 과열 되었을 때 벌어지는 무희들의 춤과 소리꾼의 노래 등 우리민족의 기층문화와 승패를 떠나 함께 어우러지며 즐기는 우리 선조들의 여유와 풍류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age, Kore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79, Taekkyeon will be presented.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Taekkyeon with features that make use of fluid, rhythmic dance-like movements to strike or trip up an opponent has been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was also recognized by UNESCO and placed on i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being honored as the first martial art on UNESCO's list in November 2011. Gyeollyeon Taekkyeon is a village-against-village match which was frequently played between the 'Wudae Taekkeyon Troupe' of noble men and 'Areadae Takkyeon Troupe' of soldiers in and around Seoul during Joseon dynasty. Taekkyeon players will demonstrate this particular match representing a friendly competition between two towns in pursuit of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Throughout this energetic and pleasant performance, splendid techniques and intrepid spirit of Taekkyeon masters, exuberant melodies created by Korean percussion band, dance movements by cheerful dancers and folk songs will please both the eyes and ears of the audience.

공연순서 PROGRAM

- 01 택견설명 Introduction to Taekkyeon
- 02 기본동작 시연 Demonstration of Basic taekkyeon moves
- 03 규칙 소개 Introduction to rules
- 04 선수 출전 Release of players
- 05 결련택견 재현 Gyeollyeon Taekkyeon representaion
- 06 발등밟기놀이(관중 참여) Baldeungbaggi Nori (a game of treading on foot) with the audience



대표 도기현(사)결련택견협회 회장)

연출 이학선

출연 박성우, 정주열, 황인무, 이찬재, 김시중,
박재울, 이천희, 김다사랑, 황혜진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

Honam Jwado Imsil Pilbong Nongak

2014. 9. 21.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Photographer Koo
10
E-mail: aye?
Home: blogdrea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넉넉하고 푸짐하며 삶의 생동감이 넘치는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을 선보인다. 오늘 의 공연은 굿을 시작하기 전에 치배(연희자)들이 손발을 맞추어 보며, 굿을 빠르게 몰아가는 형태 의 굿머리 가락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1채부터 7채까지 독립된 가락을 사용하여 장단의 빠름과 느림을 섞어가며 짜임새 있게 원진으로 움직이며 연주하는 채굿, 치배(연희자)들이 원진 반대방향 안쪽으로 달려 들어가 원진 을 감아 돌면서 나선형 모양의 진법을 만들어 가며 꾸미는 방울진굿, 두 줄의 진 형태를 갖추고 진풀이 가락으로 태극 모양을 만들며 구음으로는 호호와 허이를 외치며 움직이는 호호굿, 그리 고 미지기굿으로 농악은 끝이 난다. 공연의 마지막은 치배(연희자)들의 개인놀이로 관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Today, Imsil Pilbong Nong-ak (literally, farmers' music) of Honam Jwado region in North Jeolla province that is full of vigor and vitality will be presented. The stage begins with Gutmeori gut of which a group of chibae (performers) ensures details of the performance before presenting to the audience. In Chaegut, performers make a round formation while playing a set of 7 independent rhythms with fast and slow tempos combined. Banguljingut of which performers make a spiral shape; and Hohogut where the troupe lines up in 2 columns and shouts 'Hoho' and 'Heoi' will be followed. Nongak performance will conclude with Mijigigut and lastly, individual performers will delight the audience with their distinctive skills and talents.

공연순서 PROGRAM

1마당 -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 1st Stage - Honam Jwado Imsil Pilbong Nongak

1. 굿머리 가락 Gutmeori garak
2. 채굿 Chaegut
3. 방울진 Banguljin
4. 호호굿 Hohogut
5. 미지기굿 Mijigigut

2마당 - 개인놀이 2nd Stage - solo performances



대표 송주광(전통연희연구소 예술감독)

출연 문번수, 정일협, 김린한, 송주진, 최동숙, 정은경,
김재균, 최태양, 선봉주, 김종홍, 왕동호, 권은정,
이영준, 유선화, 권미정, 문옥경, 구자호

오천 년 전의 가와지범씨와 고양송포호미걸이

5000-year-old rice kernel in Gawaji and Goyang Songpo Homigeori

2014. 9. 28.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예술단체인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2호 고양송포호미걸이보존회의 민속놀이를 선보인다.

고양송포호미걸이놀이는 경기도 고양시 송포동 대화마을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민속놀이로 보통 칠월 칠석을 전후로 두벌 김매기가 끝나면 호미를 잘 씻어 걸어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호미걸이 하는 날을 정하게 되면, 음식과 술 등을 추렴하고 앞으로 자연의 재해를 막고 풍년을 기를 기원하는 기원제의 의미와 농사를 짓느라 힘들고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하루를 온 마을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노는 축제의 의미로 형성된 것이다.

두렛소리와 고양두레12체가락은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발견된 오천년 전의 재배범씨인 가와지범씨가 증명하듯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함께 해온 진정한 우리 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공연을 통해 그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A representative art group in Goyang city, Goyang Songpo Homigeori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22 of Gyeonggi Province) Preservation Society presents a series of folk plays.

Goyang Songpo Homigeori is a transmitted folk festival performed in Daehwa village of Songpo-dong, Goyang city, Gyeonggi province. The origin of the festival can be traced back to the special feast or entertainment given as prizes to farm workers or servants who worked the best during the weeding season. After the weeding around July 7th in the lunar calendar, people wash and hang their weeding hoes and then gathers to decide when the Homigeori festival would be played. On the day of the event, people bring food and alcoholic beverages; enjoy eating, drinking and dancing altogether. As proved by 5000-year-old carbonized rice kernels excavated during the construction work on a new housing development in Gawaji village of Ilsan, Duresori and Goyangdure composed of 12 rhythms are truly the authentic Korean sound having a long history of five thousand years. In this program, the audience can fully appreciate the value and meaning of this special festival along with the accompanying music.

공연순서 PROGRAM

- 01 길놀이 Gilnori
- 02 김매기소리(두레소리) Gimmaegisori(Duresori)
- 03 상산제 Sangsanjae
- 04 대동고사 Daedonggosa
- 05 대동놀이 Deadongnori
- 06 유가제 Yugajae
- 07 뒷풀이 Dwitpuri



대표 조경희 (고양송포호미걸이보존회 회장)

출연 조경희, 김기성, 권슬기, 김성순, 조병선, 최영수, 박명기, 우영란, 김동희, 이옥자, 허현범, 김수영, 김순애, 최은조, 박순나, 김준원, 함영숙, 이달세, 김순임, 김수자, 전정숙, 이두난, 서덕호, 이승정, 조봉옥, 김영심, 김동욱, 임정자, 정정희, 정명옥, 김옥이, 김향자

